



제23회 고창문학상을 수상하고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지난 12월 6일(화) 오후 6시, 전북 고창군(高敞郡) 고창읍 르네상스 웨딩홀에서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고창문인협회 회장 강복남)가 주최한 제55호 「고창문학」 출판기념회와 제23회 고창문학상 시상식에서 나는 제23회 고창문학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에는 나순희 직전 회장 등 역대 회장들과 100여명의 회원들,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장, 이경신 부의장, 오세환 의원, 박종은 고창예총 회장, 김영주 고창교육지원청장, 고윤기 고창군 자치행정국장, 이문구 농협 고창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나는 아버지의 외가인 전북 고창군 신림면(新林面) 부송리(富松里) 261번지(부송부락)에서 태어났다. 이곳에서 사실 때, 아버지는 밤 늦도록 새끼 꼬고 가마니를 짜서 고창군 흥덕면 흥덕장터에 지게에 지고 가서 팔고 돈이 아까워서 팔죽 한 그릇 사먹지 않고 집으로 오시다기 기운이 다하여 기진(氣盡)하여 겨울밤 길설 눈발에 쓰러져 있었다. 하늘이 살려주실려고 장에 갔다오던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여 등에 업어서 집으로 데려왔다. 만약 10분만 늦게 발견했다면, 추운 겨울 밤, 힘이 다하여 정신을 잃고 길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으니 곧 바로 얼어서 목숨을 잃으셨을 것이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면 어린 아이였던 나의 운명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알 수 없는 불안정하고 불운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얼마 안되어서 아버지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477번지로 가족들이 이사갔다. 나는 대마초등학교와 영광중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고 광주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

전북 고창은 내가 태어나서 땀을 묻은 영원한 고향이다. 그래서 출생지 문인들의 문학단체인 고창문인협회와 전북문인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1991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 1995년 1월 1일 발행한 첫시집 「화산(火山)」 초판본의 약력에서 '전북 고창군 신림면 출생, 전남 영광군 대마면 성장'과 '모양문화회, 전북 문화회 회원'이 들어 있다.

모양(牟陽)문화회는 고창읍성의 다른 이름인 모양성(牟陽城)을 본따서 지은 이름으로 1959년 2월 15일 창립되었으며, 1990년 3월 25일 창립된 고

창문인협회와 1998년 1월 28일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9년 창립된 고창문인협회는 6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저력있는 문학단체로 성장했다.

현대시산맥(詩山脈)을 형성하고 있는 미당(未堂) 서정주(徐廷柱) 시인의 고향인 고창은 문향으로 빛나고 있다. 미당 시인은 나의 첫시집 「화산」에 친필 휘호와 서문을 써 주시고, 1995년 3월 24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화산」 출판기념회에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다. 출판기념회에 오신 미당 선생님에게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하여 나란히 서 계시는 어머니를 '고창 부안면 진목부락이 친정이고, 1915년생 동갑입니다'고 소개했더니, 미당 선생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미당 선생은 1915년 5월 18일, 어머니는 1915년 8월 22일이 생신이다. 미당 선생은 설날 남현동 자택으로 세배를 간 나에게 문학과 인생을 가르쳐 주신 나의 큰 스승님이다.

미당 선생의 생가와 미당시문학관이 있는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진마을(진마재)은 어머니의 친정, 나의 외갓집이 있는 고창군 부안면(富安面) 사창리 진목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어릴 적, 외삼촌과 외할머니 회갑이나 생일에는 하루 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20km가 훨씬 넘는 먼 길을 걸어서 진목마을을 찾아가던 추억이 생각난다. 지금은 외할머니도, 외삼촌도, 외숙모도 모두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다. 이제 나도 하늘로 떠날 빠른 번호표를 손에 쥐고 있다.

내가 성장한 영광에서는 2000년 11월 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 영광지부를 청빙하여 초대 회장을 하면서 고은(高銀) 시인을 초청하여 문학강연을 주최했고, 제1회 영광문학상을 정종(鄭蹤) 동국대 명예교수(철학박사), 제2회 영광문학상을 오세영(吳世榮) 서울대 명예교수(문학박사, 예술원 회원)에게 드렸다. 회장에서 물러난 후, 2003년 2월 제3회 영광문학상을 받았다.

상(賞)은 크든 작든 기본 좋은 일이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격려이기도 하다. 태어난 고향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정진 차려서 더 잘 하라는 큰 책적으로 받아들인다. 챙겨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서민 경제 위협하는 보이스포싱,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김재록 나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장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속했던 경제 상황을 겨우 버텨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아진 금리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 속을 이용하여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사기 범죄가 기승이다.

사기 범죄는 대표적으로는 보이스포싱으로 알고 있는 전자통신금융사기,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차용 사기, 투자사기, 중고·위조품거래사기 등 여러 가지 변종 수법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액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대표적인 피해 유형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범죄를 쉽게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전화 또는 문자로 검·경찰을 사칭하여 접근, '원격 앱 설치 유도'하는 것이 보이스포싱의 대표적이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다.

둘째, 은행을 사칭해 한도는 높고 저금리 상품이 있다며, 누구나 유혹 당할 말로 접근하여 대출 방법조차 아주 간단한 것처럼 '대출상품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유형이다.



셋째, '가족 또는 지인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접근'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그중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기가 고장이 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유형인데,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잘 속게된다.

위와 같은 대표적인 보이스포싱 수법 이외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이스포싱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은 대부분 비슷한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정부·공공기관이라며 자금 또는 사건을 해결할 금액 이체 요구하거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또한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문자로 발송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접속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한 전화나 문자는 절대 믿지 않는 습관을 갖고, '경찰청 사이버rip', '시티즌 코난', '피싱 아이스' 등 앱을 다운받아 국민 스스로가 보이스포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칼럼

소방차 길 터주기,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

안재용 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소방교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공사 현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행사장 등 차량 정체현상은 늘어만 가고 불법 주·정차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수습을 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결코 어려운 일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다.

물론 많은 홍보활동으로 긴급차량 운행 시 길 터주기를 하는 운전자 또한 많아졌다. 하지만 길 터주기 요령을 몰라서 소방차(긴급차량) 접근 시 당황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도로 여건상 길 터주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 상황별 길터주기 요령은 첫째,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우측이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 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혹은 일시정지 한다.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 운전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로 및3차로로 양보운전한다.

그 외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 협소한 도로 양면 주·정차 금지,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하지 않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설치 및 주변 주차 금지 등이 있다.

위의 사항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 의식의 변화다.

도로에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을 보게 된다면 위협에 처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도와주기 위해 출동 중인 것을 인지해 긴급차량 통행을 위해 길 터주기를 해야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동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